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4. 1.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총괄)	9
III. 청렴체감도 영역 평가 결과	12
IV. 청렴노력도 영역 평가 결과	22
V. 부패실태 평가결과	34
VI. 심층분석	35
VII. 향후 계획	42

붙임 :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목적)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여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기관 : 총 22개 기관 단일유형

- 국립대학병원(10개), 지방의료원(9개),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 평가 체계

-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모형 적용('22년~)

청렴체감도 (60%)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부패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40%)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리베이트 적발내역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진료비 과다청구 내역을 점수화하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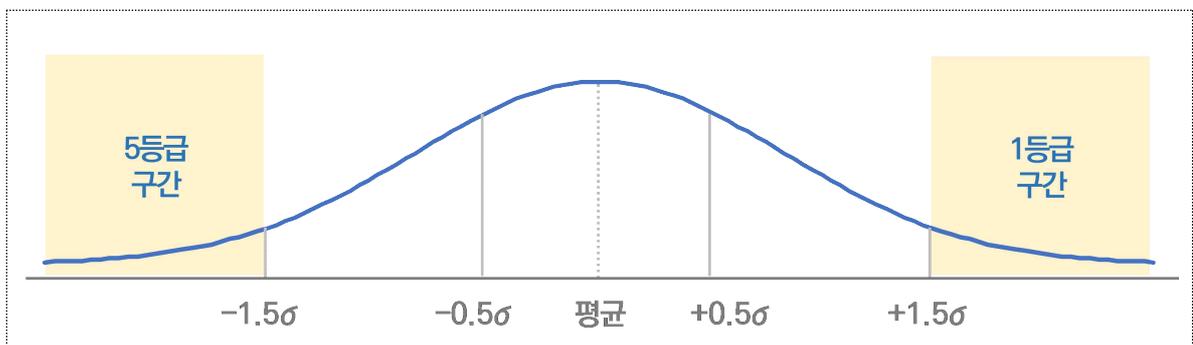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23년도 평가 특징

- 기존 격년평가 대상이던 **지방의료원을 매년평가로 전환**하고, 기관 규모를 기준(정원 500명, 병상 300개)으로 평가대상 공공의료기관 선정
 - 종합평가로 인한 평가 부담,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표본 확보, 청렴 노력도 지표 이행 가능성, 평가 필요성 등을 종합고려
- 개편 2년차,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체계와 반영비중 유지
 - (청렴체감도) 공공의료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측정모형을 유지하되, 핵심설문 중심으로 문항 개선·간소화
 - (청렴노력도) 공공의료기관의 실질적 청렴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핵심지표(총 10개)로 구성된 특화모형 적용
 - (부패실태) 정량평가(5%)와 정성평가(5%) 합산점수로 산출

□ 결과 산정

-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 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단, 표준편차로 인해 1등급선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선은 100점으로 함

2. 청렴체감도 평가 개요

□ 개요

-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업무상대방·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 설문 의 큰 틀과 방향은 유지하되, 문항은 개선·간소화

□ 평가모형

- 외부업무(계약업체, 환자 대상)의 부패수준인 외부체감도(68.6%)와 내부 조직운영(내부직원 대상)의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31.4%) 가중합산
 - ※ 외부·내부체감도 및 설문 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의견조사(델파이기법)를 통해 산출



구분	내용
측정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업무)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계약업체, 환자 등 업무 상대방 ▶ (조직 내부운영) 공공의료기관 소속 공직자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여부, 빈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외부업무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내부는 온라인 조사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외부) 의료분야 계약, 일반계약, 환자진료 세 가지 업무로 구성
 - 각 업무의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15%)으로 반영하여 산출

구분	측정업무	세부항목		가중치	
부패인식 (100%)	의료분야 계약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6.2%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7.0%	
			투명한 업무처리 ('23년 신규)	13.9%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10.3%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4.5%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9.3%	
		리베이트	처방·구매시 리베이트 영향 여부	18.8%	
	일반계약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8.4%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17.4%	
			투명한 업무처리 ('23년 신규)	12.7%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11.8%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4.0%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16.0%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9.7%	
	환자진료	진료과정 투명성		25.0%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25.4%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		24.7%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24.9%	
	부패 경험 (-15%)	청렴의무 위반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55.2%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44.8%

○ (내부)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

- 내부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를 가중합산한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 경험 점수를 감점(최대15%)으로 반영하여 산출

구분	세부항목		가중치
부패 인식 (100%)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5.7%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14.9%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14.4%
		기준-절차를 위반한 인사업무 처리	12.7%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13.2%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사익추구	15.6%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13.5%	
부패 경험 (-15%)	청렴의무 위반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55.2%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44.8%

□ 평가 방법 (설문조사)

○ 설문 대상자 : 총 4,610명

구분	규모 (명)	조사 대상
외부체감도	2,744	√ 대상기간('22.7.1.~'23.6.30.) 중 공공의료기관의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업무상대방(계약업체, 환자)
내부체감도	1,866	√ '23.6.30. 기준 해당 공공의료기관(본원, 분원, 소속기관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22.7.1.~'23.6.30.)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 조사 방법 : 전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23년 8월~11월

○ 신뢰 수준 : 의료분야 계약 95% ±1.9점, 일반계약 95% ±0.9점, 환자 진료 95% ±2.3점, 내부체감도 95% ±3.1점

3. 청렴노력도 평가 개요

□ 평가지표 : 총 10개

- 공공의료기관은 필수지표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특화지표 적용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	배점
추진체계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6점
추진실적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20점
추진체계	3.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15점
추진실적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10점
추진실적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10점
추진실적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10점
추진실적	9.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1점
추진실적	10. 감점 -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등	최대 -7.5점
추진실적	11. 가점 -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등	최대 2.5점
시책 효과성	12.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10점

※ 총점(가점 포함 최대 82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청렴노력도 비중 (40%)에 따라 반영

□ 평가방법

-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별도 용역)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
 - 기관의 이의제기 및 검토, 국민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기관별 청렴노력도 점수 산출

※ 대상기간 : '22. 11. 1. ~ '23. 9. 30.

- 일부지표는 설문조사와 통계자료(청렴체감도 결과) 활용

※ 시책 효과성 평가

4. 부패실태 평가

□ 개요

- 평가기간('22.7.1.~'23.11월) 중 기관의 부패행위 발생현황을 점수화 하여 평가에 반영
 - ※ 자세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기관통보('23년 5월)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 평가기준

- (대상) 공공의료기관 임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상감경 불문경고 포함)가 이루어지거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혐의)가 확인된 사건
- (유형) 반부패 법령* 관련 부패사건,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 공정위 리베이트 적발내역
 -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범위)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외부적발 사건만 반영
 - ※ 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 감독기관, 언론 등 외부 적발

□ 평가방법

- (정량) 부패행위자의 직위, 기관 총 부패금액, 기관 정원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최대 5점 감점)
 - * 3년 이내('21년 ~ '23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 반영
- (정성) 주요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정성평가
 - ※ (주요 부패사건)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외부적발)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5건) 이상, 외부 적발비율 50% 초과

5. 진료비 과다청구 감점

- 요양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하여 환자로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내역 감점 반영
 - ※ 평가대상기간('22.7.1.~'23.6.30.)동안 반환된 급여내역
- 총 급여 신청건수 대비 부당청구된 건수의 비율을 산출식에 따라 점수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기관별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자료 활용

6.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 개요

- 종합청렴도 평가 과정에서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제재
 - ※ 자세한 제재기준·규모 및 방법은 기관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참고

□ 제재 대상

- (유형) 명부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허위·조작 제출 등
 - ※ 대상기관 현지점검, 상시 제보 및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응답 등을 통해 적발

□ 제재 방법

-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제재 조치 필요성 및 정도(주의·경고, 감점 등) 심의·결정

II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총괄)

□ 종합청렴도 점수 및 등급 현황

○ (점수) 전체 공공의료기관(22개) 종합청렴도는 74.8점

※ 평가 대상기관 대폭 변경으로 전년대비 등락 및 시계열 분석 미 실시(지방의료원 9개 추가, 치과병원 4개 제외)

○ (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없으며, 5등급 기관은 2개

< 등급별 기관 수 분포 >



※ 기관별 등급표는 붙임 참조

○ (큰폭 상승)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2개 등급 이상 상승 기관 3개

※ 경북대학교병원(4→2등급), 제주대학교병원(4→2등급), 서울대학교병원(5→3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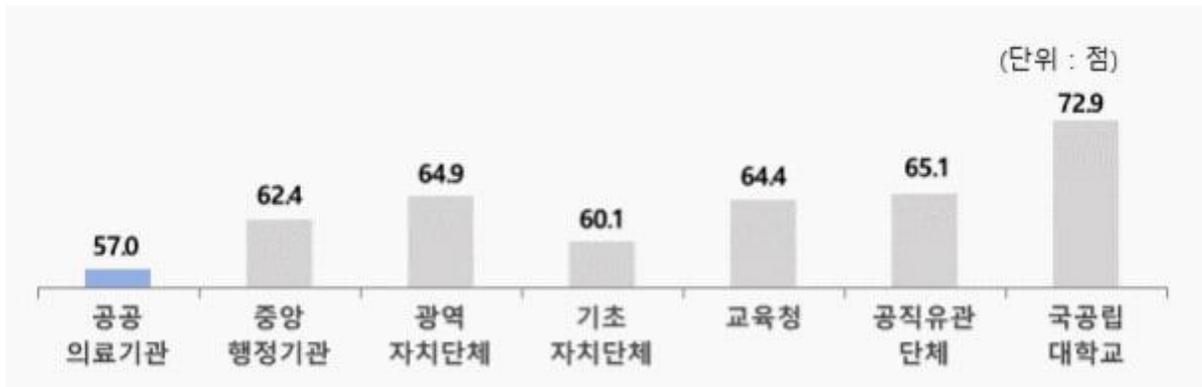
□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 (점수) 청렴체감도는 79.3점이며, 외부체감도는 87.8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내부체감도는 60.7점으로 낮게 나타남



- (외부체감도) 외부체감도 업무별 부패인식 점수는 일반계약이 96.1점으로 가장 높고, 환자진료가 82.2점으로 가장 낮았음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65.8점) 세부항목 중 특혜제공(54.0점) 및 갑질행위(57.0점) 항목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갑질행위의 경우 모든 기관 유형 중 점수가 가장 낮음

< 내부체감도 '갑질행위' 항목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 >



□ 청렴노력도 평가 결과

- (점수) 청렴노력도는 69.1점
- (비교) 공공의료기관에 적용되는 10개 지표의 점수를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과 비교 시 상당히 낮은 수준
 - 주요 원인은, 평가제도 개편('22년) 이후 올해 청렴노력도 평가를 처음 받게 된 지방의료원(9개)의 평가지표 이행실적 부진으로 분석



○ (지표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지표(89.1점)가 가장 높게, ‘시책효과성 평가’ 지표(59.6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는 상대평가로 인해 평균 점수(64.8점)가 낮은 편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지표*의 경우 필수적인 반부패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유형과의 점수 격차(19.7점)가 크게 발생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과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여부’ 평가

(단위: 점)

지표명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② 부패 취약분야 개선	③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④ 반부패·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⑤ 부패 유발요인 정비	⑥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 노력제고	⑨ 반부패 정보공개 · 접근성 제고노력	⑩ 감점	⑪ 가점	⑫ 시책 효과성 평가
공공의료기관	89.1	64.8	64.8	71.4	73.7	74.5	70.5	-0.16	0.18	59.6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93.2	75.4	75.1	91.1	91.4	87.1	86.3	-0.05	0.42	66.1
비교	-4.1	-10.6	-10.3	-19.7	-17.7	-12.6	-15.8	-0.11	-0.24	-6.5

□ 부패실태 평가 (감점)

○ (부패사건 감점) 1건 발생, 1개 기관에서 -0.5점 감점

- 감점 반영된 사건은 중간직의 향응수수 사건

○ (진료비 과다청구 감점) 20개 기관에서 217건 발생하여 평균 -0.4점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등 제재 조치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제재조치 받은 기관 없음

III 청렴체감도 영역 평가 결과

1. 청렴체감도 영역 전반

□ 전체 공공의료기관(22개) 청렴체감도는 평균 79.3점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 점수(80.0점)와 유사한 수준

< 청렴체감도 수준 비교 >



- 외부체감도(가중치 68.6%)는 87.8점
 - 계약·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들이 평가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 점수(87.0점)과 유사한 수준
- 내부체감도(가중치 31.4%)는 60.7점
 - 공공의료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조직 내부운영에 대해 평가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 점수(63.3점) 대비 다소 낮은 수준

□ 외·내부 체감도 간 큰 격차

- 외부체감도와 내부체감도 간 절대적 점수의 차이는 27.1점
 - 기관 외·내부에서 체감하는 청렴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소속 직원들이 조직 내 청렴수준에 대하여 훨씬 부정적으로 인식
 - 또한, 다른기관 유형에 비해 공공의료기관의 외부·내부 체감도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외부·내부 체감도 비교 >



- (부패인식) 외부체감도에 비해 내부체감도 부패인식이 낮게 나타남
 - 외부·내부체감도 공통항목의 점수를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외부 체감도의 부패인식 점수보다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가 낮음
 - ※ 외부·내부 체감도 공통항목 :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행위, 사익추구
 - 특히, 특혜제공 항목에서 외부·내부의 점수 차이가 40점 이상으로 가장 크고 사익추구 항목에서 가장 차이가 적음

< 외·내부체감도 부패인식 비교 >



- (부패경험) 외부체감도(-3.3점)보다 내부체감도(-5.1점)에서 더 큰 감점
 - 외부·내부체감도 동일하게 편의제공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외부·내부체감도 부패유형별 세부경험률(%) >

구분	응답자 전체 부패경험률	금품 제공	향응 제공	편의 제공	채무면제·채용청탁	부동산 등 거래특혜·정보제공 등
외부	0.44	0.18	0.15	<u>0.29</u>	0.11	0.07
내부	2.09	0.48	0.59	<u>1.07</u>	0.86	0.05

2. 외부체감도 평가결과

(1) 외부체감도 전반

□ 전체 공공의료기관(22개) 외부체감도는 평균 87.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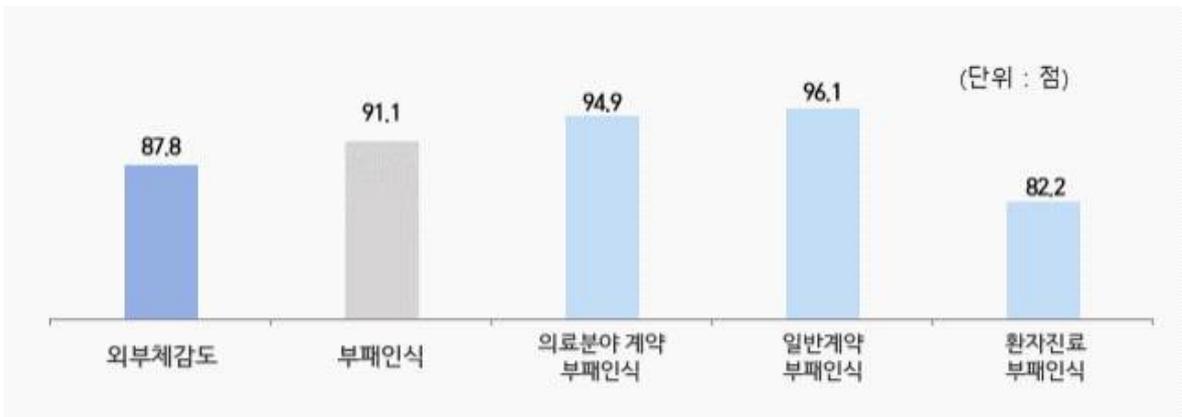
- 부패인식 점수(91.1점)에서 부패경험 감점(-3.3점)을 반영하여 산출
- ※ 외부체감도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로 산출되며, 부패경험의 경우 최대 15점 감점으로 변환하여 반영

< 외부체감도 세부 측정항목 현황 >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의료분야 계약 (의약품·의료기기 등) 불공정한 직무수행 : 부정청탁, 특혜제공, 업무투명, 절차위반 공직자의 권한남용 : 갑질행위, 소극행정 특화문항: 리베이트 제공
		일반 계약 (구매·공사·용역) 불공정한 직무수행 : 부정청탁, 특혜제공, 업무투명, 절차위반 공직자의 권한남용 : 갑질행위, 사익추구, 소극행정
		환자진료 투명성, 고가진료, 이의절차, 특혜제공
	부패경험 (최대 15점 감점)	금품, 향응, 편의, 채무채용, 부동산/금융 경험률 및 빈도

- (업무별) 일반계약(구매·공사·용역)의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높고(96.1점), 환자진료의 부패인식 점수가 가장 낮은 것(82.2점)으로 나타남

< 외부체감도 업무별 부패인식 점수 비교 >



(2) 외부체감도 부패인식

□ 의료분야 계약 영역의 부패인식 점수는 94.9점

- 의약품·의료기기·의료소모품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및 납품과정의 리베이트 영향 등 부패인식을 측정

< 의료분야 계약 세부 측정항목별 점수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의료분야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부패인식 점수		94.9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162)	96.8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0.170)	96.0
	투명한 업무처리(0.139)	93.0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0.103)	94.7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0.145)	96.6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0.093)	94.6
리베이트	처방·구매시 리베이트 영향 여부(0.188)	92.4

- 항목별로는 ‘부정청탁’ 점수가 가장 높고(96.8점), ‘리베이트 영향’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92.4점)

< 의료분야 계약 영역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비교 >



□ 일반계약 영역의 부패인식 점수는 96.1점

- 해당 의료기관과 구매*·공사·용역 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과정에서 체감한 업무처리의 투명성·공정성 등 부패인식 측정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등을 제외한 일반물품 구매

< 일반계약 세부 측정항목별 점수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일반계약(구매·공사·용역) 부패인식 점수		96.1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184)	97.4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0.174)	96.6
	투명한 업무처리(0.127)	92.8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0.118)	94.7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0.140)	96.4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0.160)	98.0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0.097)	95.2

- 항목별로는 ‘사익추구’ 점수가 가장 높게(98.0점), ‘업무투명’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92.8점)

- ‘업무투명’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측정결과에서도 점수가 가장 낮아(86.8점),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한 대부분 기관유형에서 취약

< 일반계약 영역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비교 >



□ 환자진료 영역의 부패인식 점수는 82.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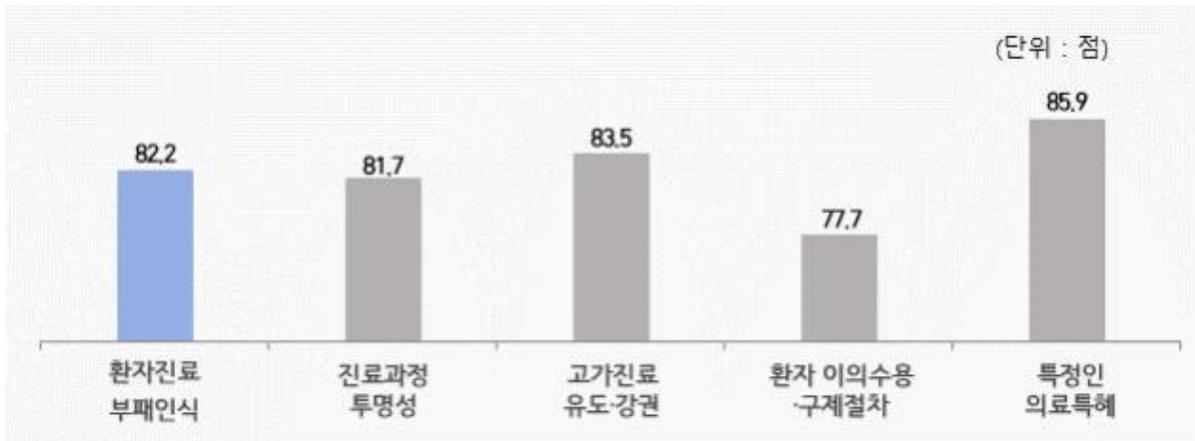
-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진료과정 중 체감한 고가진료 유도, 특정인에 대한 의료특혜 제공 등의 부패인식을 측정

< 환자진료 세부 측정항목별 점수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환자진료 부패인식 점수	82.2
진료과정 투명성 (0.250)	81.7
고가진료 유도·강권 경향 (0.254)	83.5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 충분성 (0.247)	77.7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0.249)	85.9

- 응답자들은 ‘의료 특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85.9점) 하였으나, ‘환자 이의수용·구제절차’는 충분치 못하다고 인식(77.7점)

< 환자진료 영역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비교 >



(3) 외부체감도 부패경험

□ 부패경험 감점은 -3.3점

- 의료분야 계약, 일반계약, 환자진료 업무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경험률'과 '경험빈도' 설문결과를 최대 15점 감점으로 환산
- 계약업체·환자 등 외부고객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0.44%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부패경험률(0.42%)과 유사한 수준
 -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 경험빈도는 0.008회, 부패경험자의 평균 경험빈도는 1.79회
- ※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 규모는 0.96만 원, 부패경험자의 평균 규모는 약 219만 원이며, 부패경험 규모(금액)는 참고문항으로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부패유형별로는 전통적 부패유형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부당한 업무지원 등 편의제공 경험률이 0.29%로 가장 높았으며, 금품제공 경험률이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남

< 외부체감도 부패유형별 경험률 >

구분	금품 제공	향응 제공	편의 제공	채무면제·채용청탁	부동산 등 거래특혜·정보제공 등
경험률(%)	0.18	0.15	0.29	0.11	0.07

- 업무별로는 '환자진료'의 경험률 및 경험빈도가 높게 나타남

< 외부체감도 업무별 부패경험률 및 경험빈도 >

구분	응답자 전체 부패경험률(%)	응답자 전체 평균 경험빈도(회)
의료분야계약	0.49	0.005
일반계약	0.31	0.005
환자진료	0.52	0.014

3. 내부체감도 평가결과

(1) 내부체감도 전반

□ 전체 공공의료기관(22개) 내부체감도는 평균 60.7점

○ 부패인식 점수(65.8점)에서 부패경험 감점(-5.1점)을 반영하여 산출

※ 내부체감도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로 산출되며, 부패경험의 경우 최대 15점 감점으로 변환하여 반영

< 내부체감도 세부 측정항목 현황 >



(2)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는 65.8점

○ 소속 직원이 기관 내부운영 과정 및 조직문화의 청렴도를 평가

< 내부체감도 세부 측정항목별 점수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65.8
불공정한 직무수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0.157)	68.4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0.149)	54.0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0.144)	68.2
	기준·절차를 위반한 인사업무 처리(0.127)	63.0
공직자의 권한남용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0.132)	57.0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사익추구(0.156)	75.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0.135)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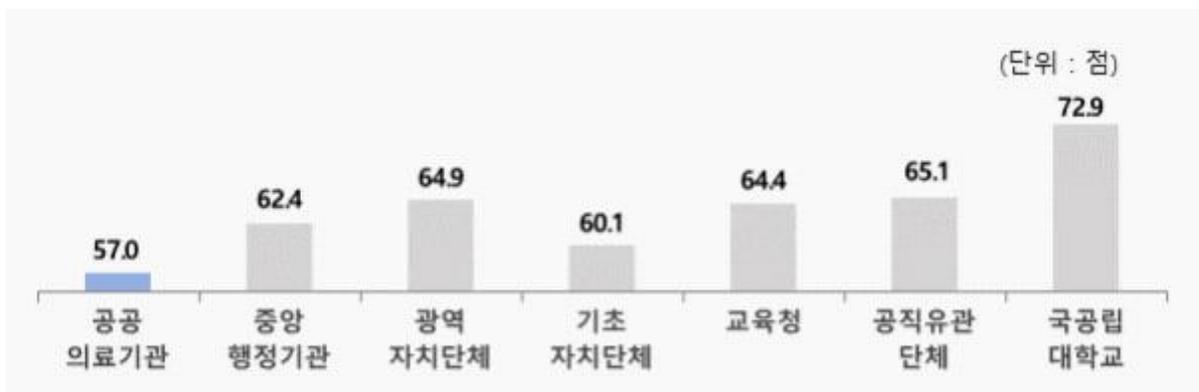
- **(항목별)** '사익추구' 항목의 점수(75.9점)가 가장 높게, '특혜제공' 항목의 점수(54.0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특혜제공' 항목은 절대적 점수는 가장 낮지만, 다른 기관유형들도 점수가 낮아 유사한 수준임
- **(특이점)** 그러나 '갑질행위' 항목은 모든 기관유형 중 점수가 가장 낮으며,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점수 차이(5.6점)도 가장 크게 나타남

※ 관련내용 35p VI.심층분석 참조

< 내부체감도 부패인식 항목별 점수 비교 >



< 내부체감도 '갑질행위' 항목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 >



(3)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 내부체감도 부패경험 감점은 -5.1점

- 조직 내부운영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경험률’과 ‘경험빈도’ 설문 결과를 최대 15점 감점으로 환산
- 기관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2.09%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부패경험률(1.99%)과 유사한 수준
 -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 경험빈도는 0.043회, 부패경험자의 평균 경험빈도는 2.04회
- ※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균 규모는 0.25만 원, 부패경험자의 평균 규모는 약 12만 원이며, 부패경험 규모(금액)는 참고문항으로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부패유형별로는 편의제공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부당한 업무지원 등 편의제공 경험률이 1.07%로 가장 높았으며, 채무면제·채용청탁 경험률이 뒤를 이어 높게 나타남

< 내부체감도 부패유형별 경험률 >

구분	금품 제공	향응 제공	편의 제공	채무면제·채용청탁	부동산 등 거래특혜·정보제공 등
경험률(%)	0.48	0.59	1.07	0.86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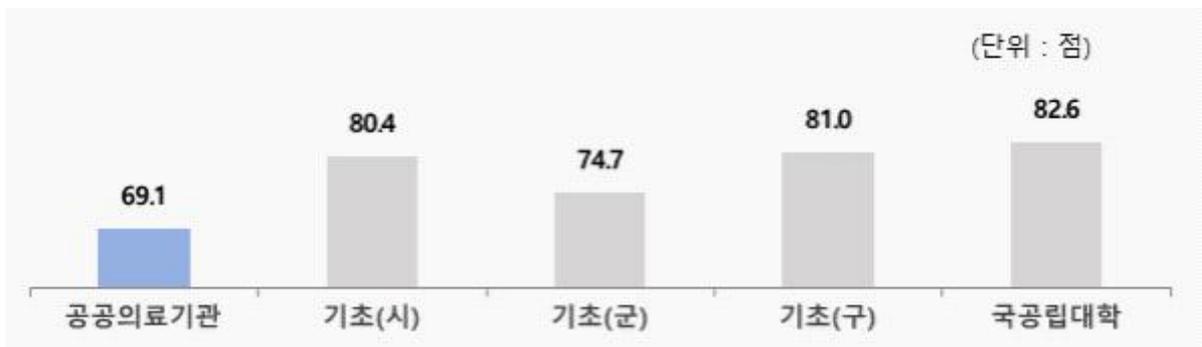
IV 청렴노력도 영역 평가 결과

1. 청렴노력도 영역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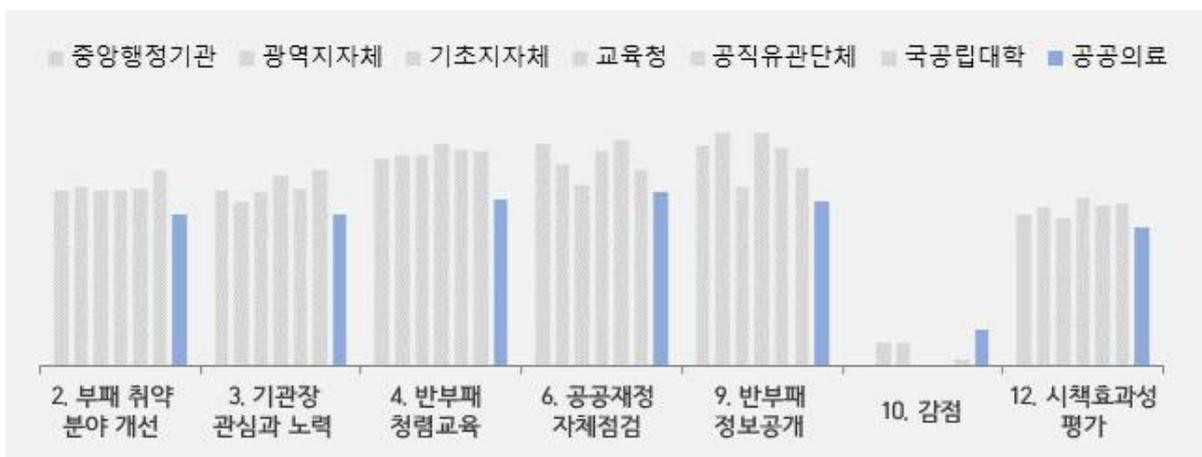
□ 전체 공공의료기관(22개)의 청렴노력도는 평균 69.1점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82.2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
 -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는 전체 12개 지표를 적용받으나, 공공의료기관은 그중 10개의 특화지표만 적용받으므로 단순 비교시에는 주의 필요
 - 공공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특화지표(10개)를 적용받는 기관유형만으로 비교했을 때도 크게 낮은 수준

< 청렴노력도 특화지표 적용 기관유형간 점수 비교 >



- 10개 지표 중 7개 지표의 점수가 전체 기관유형 중 최하위
 - 공공의료기관에 적용되는 10개 지표의 점수를 기관유형별로 비교시 7개 지표의 점수가 전체 기관유형 중 최하위로 나타남



- 각 지표별 점수를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 점수와 비교 시 대부분의 지표에서 10점 이상의 점수차이 발생
 - 특히, 반부패·청렴교육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반부패 시책임에도 이행률이 저조하고, 해당지표의 점수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에 비해 19.7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점)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	공공의료기관 평균점수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평균점수	비교
추진체계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89.1	93.2	-4.1
추진실적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64.8	75.4	-10.6
추진체계	3. 기관장(고위직 포함)의 관심과 노력도	64.8	75.1	-10.3
추진실적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71.4	91.1	-19.7
추진실적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73.7	91.4	-17.7
추진실적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74.5	87.1	-12.6
추진실적	9.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70.5	86.3	-15.8
추진실적	10. 감점	-0.16	-0.05	-0.1
추진실적	11. 가점	0.18	0.42	-0.2
시책 효과성	12.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59.6	66.1	-6.5

- 세부지표별로 살펴보았을 때, 지표 미이행기관 대부분이 지방의료원
 - 평가제도 개편(22년)에 따라 올해 처음 청렴노력도 평가를 받게 된 지방의료원에서 평가 대응을 위한 준비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

지표 및 평가요소 (미이행 기준)	미이행 기관 중 지방의료원 수(비율)
1-② 기관장 주관 회의 운영 (0회, 미운영)	4/4 (100%)
4-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0%)	3/3 (100%)
5-④ 일상감사 범위 채용분야 규정화 (미실시)	6/6 (100%)
5-⑤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운영근거 규정화 (미실시)	8/9 (88.9%)
6-① 공공재정환수 등 자체점검 실적 (0회, 미실시)	5/5 (100%)
9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0건, 미공개)	5/5 (100%)
10-1-③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개설·운영 여부 (미개설)	4/4 (100%)
11-2-① 갑질 금지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대면 집합교육 (이수율 0%)	6/9 (66.7%)

2. 청렴노력도 지표별 평가 결과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지표) 기관별 실정에 맞는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조직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기관장 주관 회의를 운영하였는지 평가
- (평가결과)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의 평균점수는 89.1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93.2점)보다 낮은 수준



- 모든 기관(100%)이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

구분	기한 내 수립	기한 후 수립	미수립
기관수(22개)	21	1	0

- 18개 기관(81.8%)에서 기관장이 주관하는 반부패·청렴 회의를 실시

구분	0회	1~2회	3회 이상
기관수(22개)	4	1	17

- (성과 및 보완) 기관 특성을 반영한 반부패 추진목표 및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청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기관장 주관 회의체 운영의 경우, 형식적인 회의 운영에서 나아가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이 반부패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 (지표)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기관의 업무특성 등에 맞게 시책을 추진하였는지를 정성평가
- (평가결과)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의 평균점수는 64.8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75.4점)보다 낮은 수준



- 갑질 등 조직문화, 환자진료 분야, 금품수수 행위 등을 기관의 부패 취약분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
- (성과) 기관의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발굴함에 따라,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보완) 일부 기관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 없이 단순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비롯한 각종 감사자료, 언론보도, 기관 고유업무 특성, 기관 내·외부 관행, 자체 설문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부패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과정 필요
 - 또한 도출된 부패 취약분야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독창적이고 다양한 정책수단의 개발 및 활용이 요구됨

[3]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

- (지표) '2.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 개선' 지표에서 설정한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사례에 대해 정성평가
- (평가결과) '기관장(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의 평균점수는 64.8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75.1점)보다 낮은 수준



- (성과 및 보완) 기관장이 부패취약 분야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에 따라 반부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업무의 추진력을 확보
 - 그러나 청렴서약,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캠페인 등의 일상적인 시책에 고위직이 단순히 참여하는 형태로 실시되는 경우가 다수
 -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제도개선 추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의 부패 취약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활동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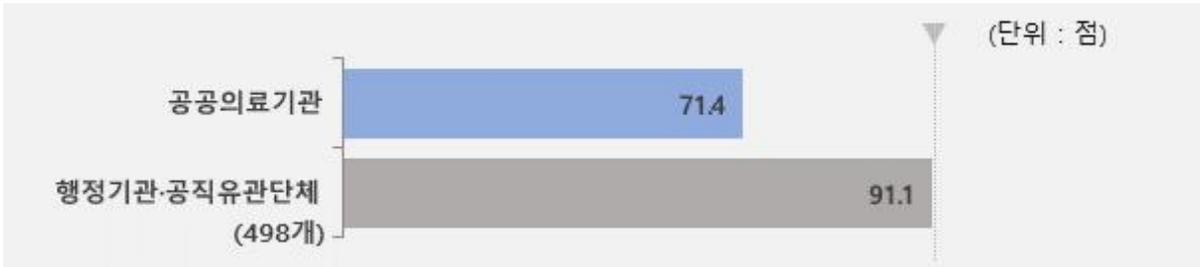
《 우수사례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기관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

- 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의 청렴 TFT를 기관장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위원회로 변경하고 청렴 모니터링 실시
- 기관장의 청렴의지 전파를 위해서 언론에 기고문을 게재하고, 청렴캠페인 영상 제작 및 배포
- 청렴캠페인 관련 예산을 '22년 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청렴활동에 대한 물적 지원을 대폭 확대

(4)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지표)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과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평가
- (평가결과)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의 평균점수는 71.4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91.1점) 보다 매우 낮은 수준



-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19개 기관(86.4%)에서 고위직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11개 기관(50.0%)은 고위직 전체가 교육이수 완료

이수율	100%	94% 이상 100% 미만	90% 이상 94% 미만	86% 이상 90% 미만	85% 이하	미실시
기관수(22개)	11	1	2	3	2	3

-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모든 기관(100%)에서 '22년도 청렴교육 이수율 등의 실적을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완료
- (성과 및 보완) 공공의료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총 801명 중 632명 (78.9%)이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고위직의 청렴의식 향상
- 그러나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원인 분석 후 교육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교육청 99.5% > 공직유관단체 97.1% > 국공립대학 97.0% > 광역자치단체 96.0% > 기초자치단체 94.4% > 중앙행정기관 92.9% > 공공의료 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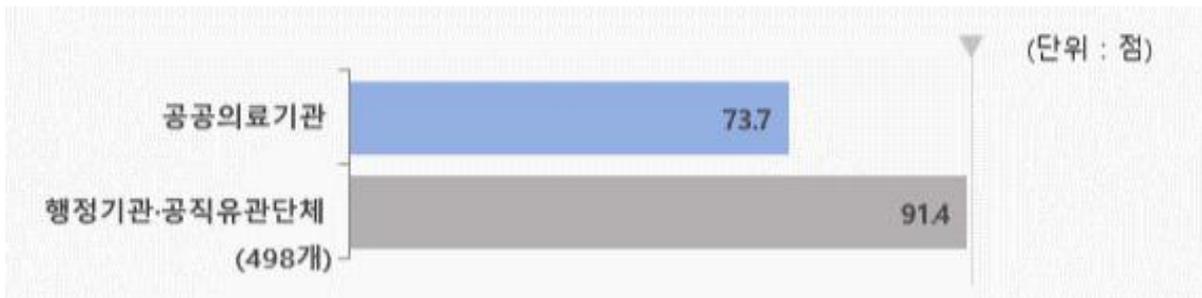
《 우수사례 》

[국립암센터] 기관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율 100% 달성

- 의료기관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특정일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3차(총 1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
- 사례중심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 제고

(5) 부패 유발요인 정비

- **(지표)** 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노력 및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 노력 등 평가
- **(평가결과)** '부패 유발요인 정비'의 평균점수는 73.7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91.4점)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19개 기관(86.4%)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5회 이상 실시

구분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미실시
기관수(22개)	19	0	1	1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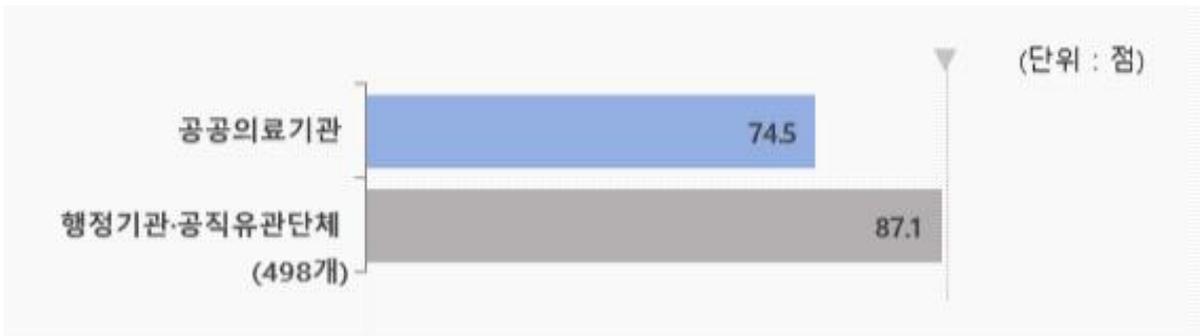
- **(이해충돌 실태점검 협조)** 권익위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하여 감점된 기관 없음
- **(채용분야 일상감사)** 16개 기관(72.7%)에서 기관의 자체 감사규정 또는 채용규정의 일상감사 범위에 '채용분야'를 명시
- **(공정채용 검증위원회)** 13개 기관(59.1%)에서 직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 전 '공정채용 검증위원회'를 실시하도록 자체 채용규정 개정
- **(성과 및 보완)** 부패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및 취약분야(외부강의, 연구비 집행 등) 대상 점검을 실시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채용관련 사규 개정으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관련 지표 이행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 국정과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이행 독려 필요

※ 지방의료원(9개) 중 공정채용 지표 모두 이행(0개), 일부만 이행(4개), 전부 미이행(5개)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

- **(지표)**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 적정성에 대한 자체점검 여부 평가
- **(평가결과)** ‘공공재정 부정수급 기관별 자체점검 노력 제고’의 평균 점수는 **74.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87.1점) 보다 낮은 수준



- 17개 기관(77.3%)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환수처분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

구분	연 2회	연 1회	미실시
기관수(22개)	15	2	5

- **(성과 및 보완)** 자체점검 결과,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과다청구 등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
 - 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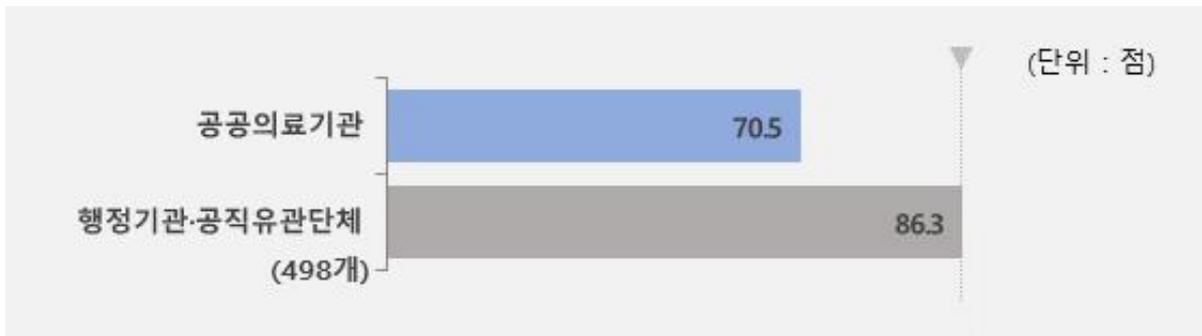
《 우수사례 》

[충남대학교병원] 취약분야 점검 결과, 정산 부적정 적발 등 내실있는 점검 수행

- 예산 규모가 크거나 과거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하였던 분야에 대해 적정 집행여부를 점검
- 기관 소관 공공재정 예산에 대한 자체점검을 2회 실시하여 정산 부적정 등 5건 적발 및 사후 조치

[9]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지표)** 청렴시책 추진 실적 등을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하여 기관별 벤치마킹 및 청렴시책 추진 활성화 여건 조성
- **(평가결과)** ‘반부패 정보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의 평균점수는 70.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86.3점)보다 낮은 수준



- **(청렴활동 공개)** 16개 기관(72.7%)에서 청렴포털을 통해 우수시책, 캠페인 등의 청렴활동을 3건 이상 공개
- **(신고 등 사례 공개)** 13개 기관(59.1%)에서 청렴포털을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상담·적발사례를 3건 이상 공개
- **(개정지침 공개)** 17개 기관(77.3%)에서 청렴포털을 통해 반부패 관련 제·개정 지침을 1건 이상 공개
- **(성과)**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기관 간 벤치마킹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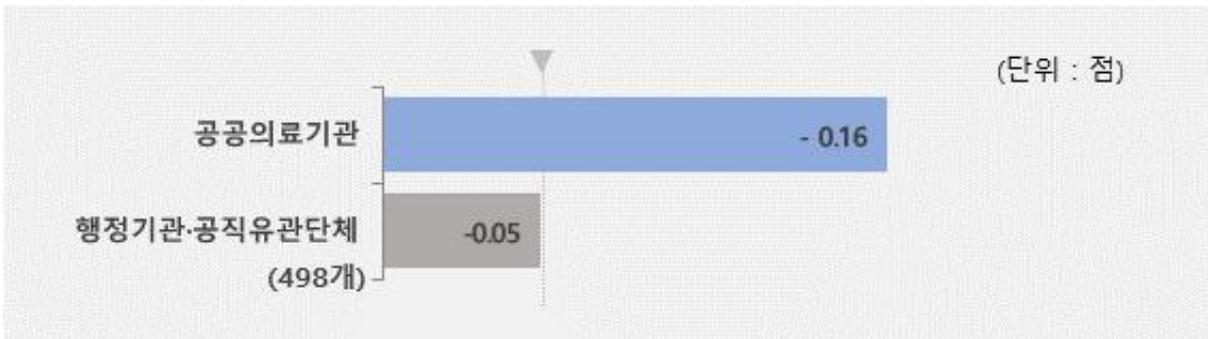
《 우수사례 》

[경북대학교병원] 다양한 청렴활동 및 실제 상담사례를 상세히 공개

- 청렴퀴즈 이벤트, 환자 접점부서 반부패 캠페인 등 5건의 다양한 청렴활동 공개
- 또한, 기관에서 실제 업무과정 중 발생한 청탁금지법 질의사항 상담사례들을 상세히 공개하여, 기관 내·외부 관련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10) 감점지표

- **(지표)** ①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②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③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의 3개 지표로 구성
- **(평가결과)** 감점지표 총점의 **평균점수는 -0.1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0.05점)보다 **큰 폭의 감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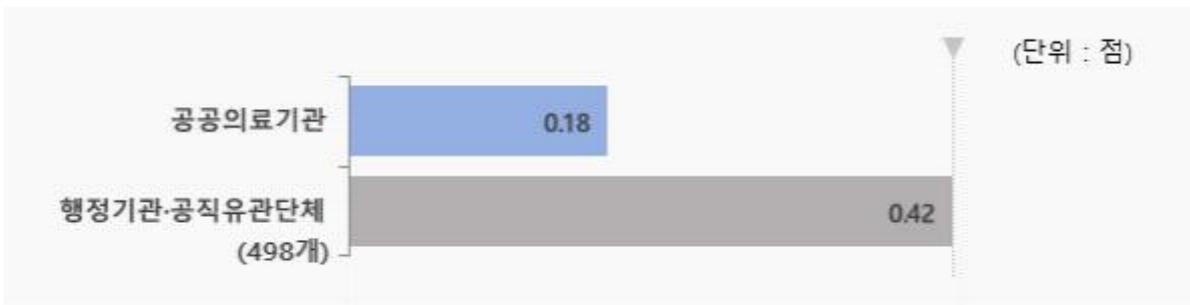
구분	부패신고 등 처리 내실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미공개·지연공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권익위 신고 이첩·송부 사건 미회신	청탁금지법 부적절사례 미조치	청렴포털 신고창구 미개설		보호결정 미이행	조사 협조요청 미이행 등
감점기관수	0	1	4	2	0	0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1개 기관(4.5%)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미이행
-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4개 기관(18.2%)에서, 청렴포털을 이용해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창구 미개설
 - ※ 다른 기관 유형의 신고창구 미개설 기관 비율에 비해 높은 수준
 - 중앙행정기관(1개, 2.2%), 기초자치단체(2개, 0.9%), 공직유관단체(2개, 1.0%), 광역자체단체 및 교육청은 미개설 기관 없음
-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 2개 기관(9.1%)이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법령상 기한이 도과한 이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구분	기한내 공개	지연공개	미공개
기관 수	20	2	0

[11] 가점지표

- **(지표)** ①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②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 강화, ③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노력
- **(평가결과)** 가점지표 총점의 평균점수는 0.18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0.42점)보다 낮은 수준



구분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강화			적극행정 구현노력
		교육 실시	기관장 이수	기관장 직접강의	
가점기관 수	0	13	9	4	1

- **(갑질개선 노력강화)** 13개 기관(59.0%)에서 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대면교육 실시

※ 공공의료기관 중간관리자급 이상 공직자 총 1,742명 중 1,287명(73.9%)이 갑질 예방교육에 참여

《 우수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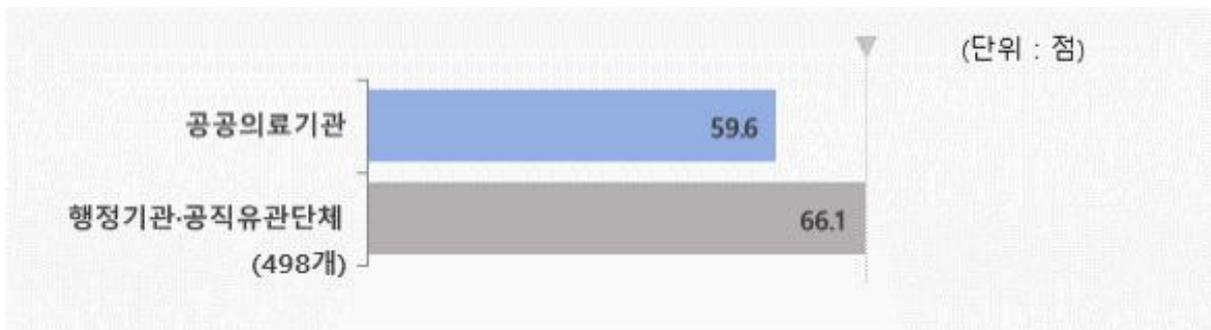
[전남대학교병원] 기관장이 직접 간부급 공무원에게 구체적 사례 등 교육

- 기관장이 직접 강의를 통해 갑질 금지 관련 행동강령 규정 및 갑질행위에 따른 징계사례 등을 소개하며 교육 실시
- 적극적인 교육 참여 독려로 이수율 100% 달성

- **(적극행정 구현 노력)**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권익위가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1개 기관(4.5%)이 수용하여 가점 부여

[12] 반부패 시책 효과성 평가

- **(지표)**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시책에 대해 구성원이 느끼는 효과성을 평가(설문조사 결과 반영)
 - ※ 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② 기관장·고위직 의지·노력, ③ 청렴교육 이행, ④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노력, ⑤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 **(평가결과)** ‘시책 효과성 평가’의 평균점수는 59.6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66.1점)보다 낮은 수준



- 항목별로는 ‘청렴교육 이행’ 항목의 점수(62.5점)가 가장 높게,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항목의 점수(55.7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보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 추진여건 조성 필요

V 부패실태 평가 결과

□ 부패사건 감점 현황

- (발생 현황) 감점 대상 부패사건은 총 1건
 - 1개 기관(4.5%)에서 -0.5점 감점(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 -0.02점)
- (사건 내용) 감점 반영된 부패행위 1건은 향응수수 사건
 - 행위자의 직위는 중간직이며, 부패금액은 24만 원
 - ※ 주요 부패사건 발생 또는 높은 외부적발률 등으로 전문가 정성평가에서 감점가중 적용된 기관 없음

< 감점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감점기관	평가 대상 기관 수	13	17	22
	감점 발생 기관 수	3	5	1
	발생률(%)	23.1%	29.4%	4.5%
감점사건	전체 건수	5	61	1
	감점기관당 평균건수	1.7	12.2	1

□ 진료비 과다청구 감점 현황

- 총 20개 기관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217건 발생
 - 감점 적용기관 당 평균 10.9건 발생, 평균 -0.4점 감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감점기관	평가 대상 기관 수	13	17	22
	감점 발생 기관 수	13	15	20
	발생률(%)	100%	88.2%	90.9%
감점사건	전체 건수	352	253	217
	감점기관당 평균건수	27.1	16.9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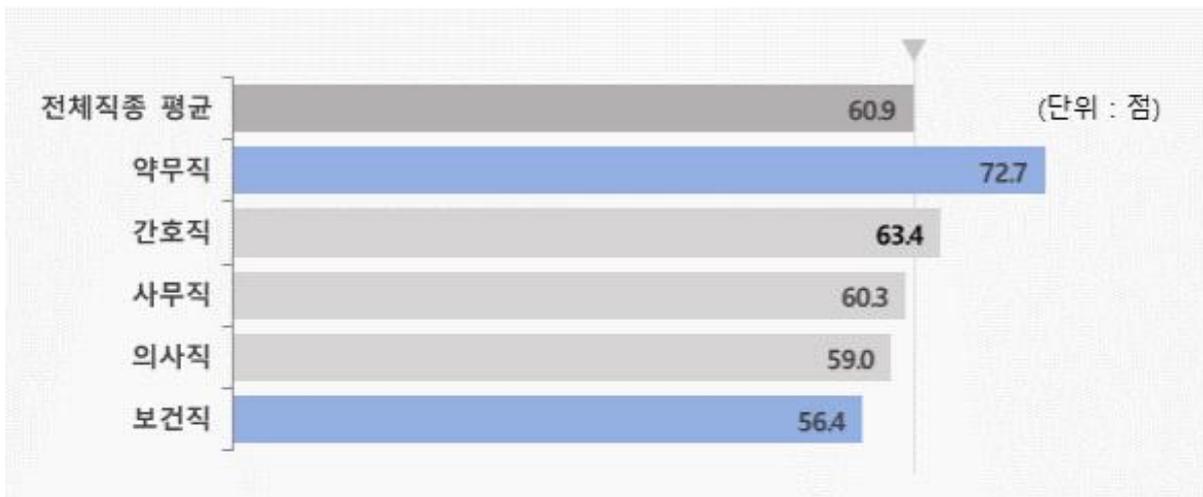
VI 심층분석 - 응답자 유형별 내부체감도 등 분석

- ◇ 의료기관은 다양한 직종이 함께 근무하고,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어 내부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실제로 전공의 대상 가혹행위, 간호사 태움문화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 이에 소속직원의 직군, 연령, 근무기간 등이 조직내부 청렴수준 평가와 어떠한 상관관계와 경향성을 보여주는지 알아보고, 특히 다른 기관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갑질행위에 대하여는 더 자세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 ◇ 더불어,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중 갑질 관련 지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공공 의료기관의 갑질 개선 노력 수준에 대하여도 분석해보고자 함

□ 응답자 유형별 내부체감도 분석

- (직종별) 약무직의 내부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72.7점) 보건직의 점수가 가장 낮으며(56.4점), 두 직종 간 점수 차이(16.3점)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

< '직종별' 내부체감도 점수비교 >



※ 보건직 :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기 조종 관련업무 수행

- 부패인식 측정항목 점수를 직종별로 분리해 보면, 7개 측정항목 중 5개 측정항목에서 보건직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부당지시, 인사위반, 갑질행위, 사익추구, 예산부당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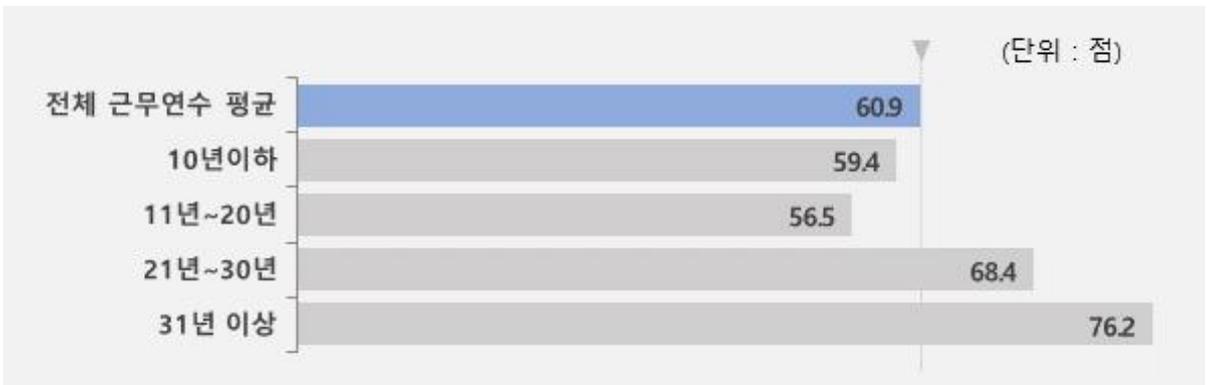
- (연령별) 연령이 낮을수록 점수가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그중 30대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연령별' 내부체감도 점수 비교 >



- (근무연수별)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낮고,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근무연수별' 내부체감도 점수 비교 >



□ 응답자 유형별 내부체감도 세부 측정항목 분석

- 내부체감도 7개 측정항목의 점수를 응답자 유형별로 분석하였을 때, 모든 측정항목 중 '갑질행위' 항목이 응답자 유형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직종별) 점수가 가장 낮은 직종(보건직)과 가장 높은 직종(약무직)간 점수 차이(12.8점)가 '갑질행위' 항목에서 크게 벌어져 직무 및 업무 환경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갑질행위'는 점수가 가장 낮은 연령대(30대)와 가장 높은 연령대(60대 이상)의 점수 차이(31.5점)가 다른 측정항목에 비해 매우 크게 발생하여, 세대 간 인식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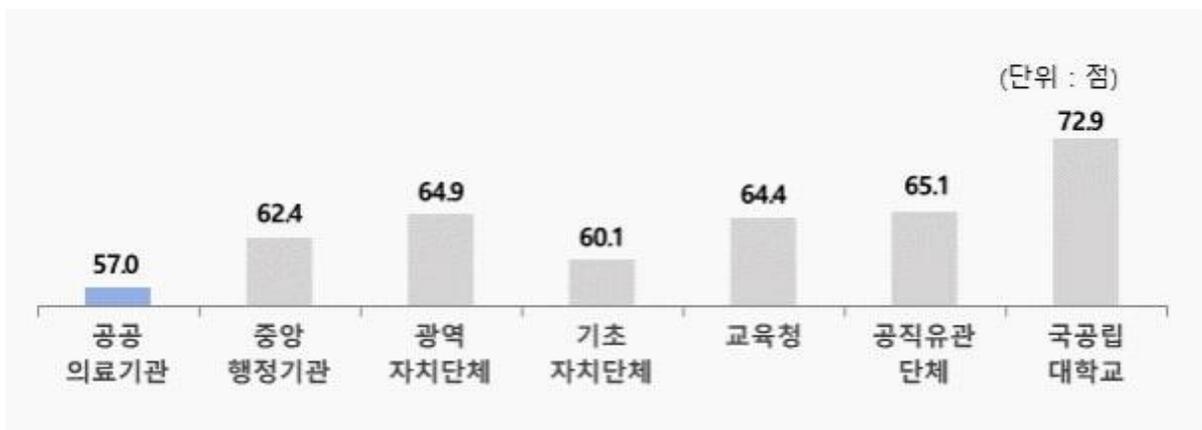
- (근무연수별) 점수가 가장 낮은 근무연수(10년 이하)와 가장 높은 근무연수(31년 이상)의 점수 차이 역시 '갑질행위'가 다른 측정항목에 비해 크게 나타남(22.1점)



□ 내부체감도 갑질행위 관련 항목 측정결과 분석

- 공공의료기관 내부 갑질행위 항목 측정결과는 57.0점으로, 모든 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
- 내부체감도 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갑질행위 항목 역시 보건의, 낮은 연령대, 짧은 근무연수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남

< 내부체감도 '갑질행위' 항목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 >



○ 갑질행위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하여 갑질행위 경험유형 및 발생 원인에 대한 참고설문 실시

※ 참고설문은 청렴체감도 측정결과에 미반영, 복수응답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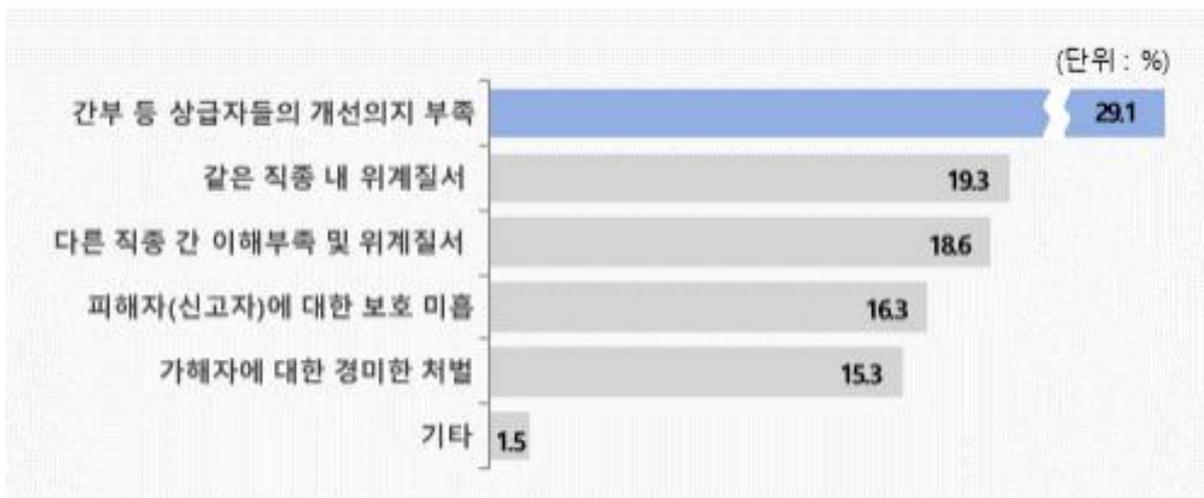
- (경험 유형) 실제 경험한 갑질행위 유형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15.7%)가 가장 많았음

< 갑질행위 경험 유형 >



- (발생 원인) 갑질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는 '간부 등 상급자 개선의지 부족'(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갑질행위 발생원인 >



□ 갑질행위 관련 청렴노력도 평가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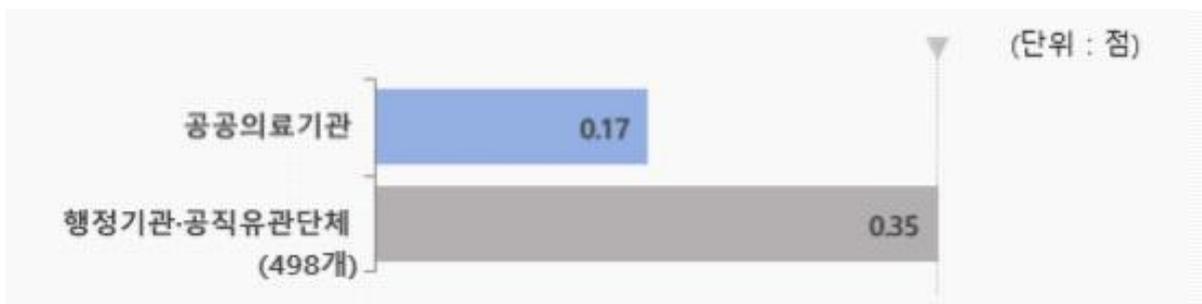
○ 갑질 관련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또는 낮은 참여율

- 청렴노력도 영역에 갑질관련 교육 실시여부를 평가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참여율 저조

※ 11-2. 공공분야 갑질개선 노력강화(0.5점 만점의 가점지표, 32p 참조)

- 해당 지표의 공공의료기관 평균 점수는 0.17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498개) 평균점수(0.35점)의 절반 수준

< 청렴노력도 '공공기관 갑질개선 노력강화' 지표 점수 비교 >



○ 갑질행태 개선을 위한 기관장 및 고위직의 관심도 저조

- 다른 기관유형에 비해 갑질교육 이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교육을 받거나 직접 강의하는 등 교육에 참여한 기관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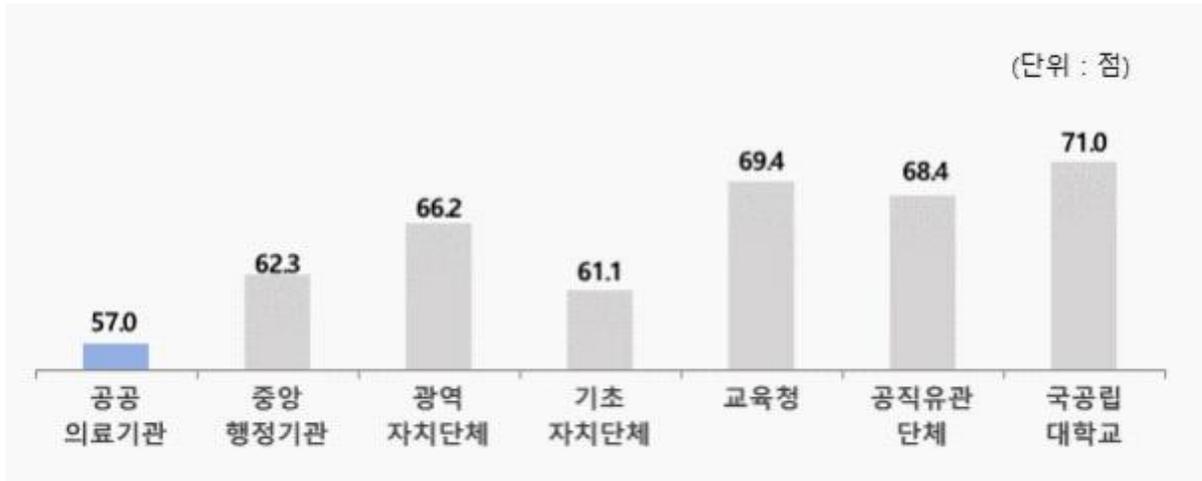
구분	이수율	대면교육 실시	기관장 이수	기관장 강의
공공의료기관 (22)	73.9%	13개 기관 (59.1%)	9개 기관 (40.9%)	4개 기관 (18.2%)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498)	82.7%	434개 기관 (87.1%)	413개 기관 (82.9%)	212개 기관 (42.6%)

○ 소속 직원들 또한 기관의 갑질문화 개선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내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 추진 필요

- 청렴노력도 시책 효과성 평가 지표의 '갑질행위 개선노력' 항목의 점수는 57.0점으로 모든 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

※ 소속된 기관에서 갑질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문(33p 참조)

< 시책효과성 평가 '갑질행위 개선노력' 항목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 >



- 대상기관 평가결과 공개(~'24.1월, 기관 홈페이지) 및 공개 결과 제출(~'24.3월)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결과발표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
- 우수기관 및 담당자 유공 포상('24.2월 예정)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취약분야 분석·활용(~'24.5월)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등급표(22개 기관)

※ 괄호 안은 '22년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22)	청렴체감도(22)	청렴노력도(22)	부패 실태
1 등급	-	대구의료원 ('22 미측정)		
2 등급	경북대학교병원 (▲2등급)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22 미측정) 전남대학교병원 (▲1등급)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2 미측정) 전북대학교병원 (▲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2등급) 충북대학교병원 (▲1등급)	경기도의료원 ('22 미측정) 부산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22 미측정) 성남시의료원 ('22 미측정)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2 미측정)	경북대학교병원 (▲2등급)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국립암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 부산대학교병원 (▲2등급) 서울대학교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1등급) 충남대학교병원 (▲1등급) 충북대학교병원 (-)	
3 등급	강원대학교병원 (▲1등급) 국립암센터 (▼1등급) 대구의료원 ('22 미측정) 부산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부산대학교병원 (▲1등급) 서울대학교병원 (▲2등급) 원자력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 (-)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2 미측정)	강원대학교병원 (▲1등급) 경상국립대학교병원 (▼1등급) 국립암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1등급) 인천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전남대학교병원 (▲1등급) 전북대학교병원 (▲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1등급)	강원대학교병원 (▲1등급) 부산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22 미측정) 원자력병원 (-)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2 미측정)	부패 실태 평가 (감점)
4 등급	경기도의료원 ('22 미측정) 인천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경북대학교병원 (-) 원자력병원(▼1등급)	대구의료원 ('22 미측정) 인천광역시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남도홍성의료원 ('22 미측정)	
5 등급	성남시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2 미측정)	부산대학교병원 (▼2등급) 서울대학교병원 (▼1등급)	경기도의료원 ('22 미측정) 성남시의료원 ('22 미측정)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2 미측정)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감점을 반영한 결과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